불타는 증시… 증권가 채용 바람

광주·전남지역 신규 점포 개설·인원 충원 러시
경력자 부족사태 … '타사 인력 빼가기' 부작용 우려

국내증시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증권업계에 인력채용 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증시 호황을 타고 목포·여수 등 거점지역에 신규점포를 개설하면서 필요인력을 채용하는가 하면 점포수를 늘리지 않는 증권사들도 고객들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는 등 점포 재배치를 통해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확보에 나서고 있다.

16일 광주·전남지역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지수가 올들어 33%나 급등하는 등 국내증시가 연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중자금이 증권사로 몰리자 증권사들이 신규점포 개설과 점포 재배치 과정에 필요한 인력채용에 들어갔다.

광주 2곳, 순천 1곳 등 지점 3곳을 운영중인 삼성증권은 금융기관 3년 이상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경력직원을 뽑고 있다. 삼성증권은 목포와 여수에 신규점포를 개설할 방침으로 이곳에서 일할 인력으로 경력직 15명 안팎을 모집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신규 채용인력과 광주지역 지점인력을 적절히 안배해 목포와 여수지점에 지점당 7~8명을 배치한 뒤 2~3명은 위탁매매 등 증권 고유업무를 맡기고 나머지는 고객들의 종합적인 자산관리(PB)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태현 삼성증권 광주지점장은 "이번 경력직 채용은 본사가 아닌 광주·전남지역 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근 증시호황도 인력충원의 한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남도청이 있는 목포와 엑스포 유치가 기대되는 여수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에 지점 3곳을 보유한 미래에셋증권도 추가로 광주에 2~3개, 전남에 1개의 지점을 개설한다는 계획아래 물밑에서 개점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측은 지점당 필요인력이 5~6명선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증권사 직원은 물론 은행 등 금융기관 근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NH투자증권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지점을 오는 23일 상무지구로 옮기기로 했으며, 교보증권은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서광주지점을 주거인구가 많은 금호지구나 풍암지구로 이전하기로 하는 등 점포 재배치를 통해 고객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증권사들이 인력충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타사의 직원들을 빼가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지역 모 증권사 관계자는 "지역내에 경력직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지역 보험사간 인력 빼가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아파트 잘 지어줘 고맙습니다"

광주 동림2지구 '우미 린' 입주자들
빼어난 조경·주거공간 호평

8월 입주를 앞두고 계약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광주 북구 동림2지구 '우미 린' 전경. 이 아파트는 823가구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우미건설 제공〉

"동림2지구 '우미 린'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거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지 앞을 흐르는 광주천과 완벽한 단지 내 조경은 고품격 주거공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광주 북구 동림2지구의 '우미 린'이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6, 7일 입주자들을 초청해 주거 편의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한 '사전 점검행사'에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고품격 아파트 탄생을 예고했다.

17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최근 동림2지구 '우미 린'에 대한 입주자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월 18, 19일 단지에서 열리는 축하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간다. 이 아파트는 108.9~161.7㎡(33~49평형)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823가구 가운데 대부분의 물량이 계약을 마쳤다.

이같은 수요자들의 호응은 우미건설 이광래(73) 회장의 적극적인 의지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5년 분양 이후 세대 마다 친환경 고급마감재,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첨단 시설을 갖추는 한편 단지 내에는 7천여평 규모의 녹지공간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

특히 에버랜드 조경팀이 시공한 단지 조경은 야간 경관조명과 고급스런 건물 외관 등과 맞물려 고품격 아파트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입주자들의 반응이다. 회사측도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경효과가 빼어난 나무를 수차례에 걸쳐 다시 심는 등 완벽한 주거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회장은 "명품 아파트는 뛰어난 시공능력과 단지 안팎의 조화, 편리한 교통 등 모든 요건이 완벽해야 한다"면서 "2009년 단지 인근의 광주천 수변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고품격 아파트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도시민 농촌 귀향 정부 100억 지원

정부가 도시민의 농촌지역 이주를 적극 돕는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주로 외지에 나가있는 해당 지역 사람들을 파악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귀향을 홍보하고, 농지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드는 경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지난 5월 선정된 시범사업 참여 시·군은 강원 화천·양구, 충남 서천·금산, 전북 진안·남원·고창, 전남 곡성, 경북 안동, 경남 남해 등 10곳이며, 각 시·군당 10억원(지방비 50%)의 지원비가 배정됐다. 농림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살펴본 뒤 본격적 사업화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오는 19~20일 충남 아산 한국증권업협회 연수원에서 지자체와 학계, 지역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연합뉴스

농촌노인들에 수지침 봉사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 임직원과 수지침봉사단원 등 30여명은 최근 무안군 청계면 노인요양시설인 에덴원을 찾아 5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지침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사랑의 쌀(20㎏) 20포대와 생필품도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신세계 이마트 봉선점 내일 오픈

이마트 '봉선점'이 19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문을 연다.

봉선점은 광주지역 5번째 이마트 매장이자 전국에선 107호점이다.

매장면적은 1만467㎡(3천167평)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은 판매시설, 지상 3층은 임대매장 및 주차장, 지상 4~7층은 주차장이 들어선다.

신세계 이마트는 "봉선점의 경우 유기농 식품 종합 코너 및 와인, 건강식품, 커피·차, 홈퍼니싱, 키즈파크, 자연주의 같은 웰빙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전문 매장을 갖춘 고급형 대형마트"라고 밝혔다.

또 지역 명품 한우 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와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쌀을 취급하는 한편, 별도로 구성된 지역특산 수산물 매장을 통해 갑오징어, 돗돔, 먹갈치, 병어 등 지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수산물을 판매하게 된다.

한편 이마트 봉선점은 19~22일 5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이마트 장바구니 또는 파카글라스 물병·컵 세트를,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5천원권 또는 이탈리아산 포도씨유 500㎖ 2병을 증정하는 개점행사를 갖는다.

/장필수기자 bungy@

광주·전남 새 돈 1조 3,950억 풀렸다

올 상반기 화폐 동향

지난 1월 신권 발행이 광주·전남지역 화폐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광주·전남지역에 공급한 돈은 화폐 발행액 기준으로 1조3천9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천420억원(21.0%) 증가했다. 회수된 화폐도 1조4천6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725억원(22.8%) 늘었다.

이에따라 총발행액과 총환수액을 합한 유통량은 2조8천6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천145억원(21.9%) 증가했다.

그러나 총발행액에서 총환수액을 뺀 '순발행액'은 -702억원으로 회수된 화폐가 발행된 화폐보다 많았다.

이처럼 화폐 발행액과 환수액이 나란히 증가한 것은 지난 1월22일 새 만원권과 1천원권이 동시 발행되면서 신·구 화폐 교체 등으로 화폐 발행 및 환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화폐 종류별로는 1만원권은 새 은행권 발행을 계기로 발행액, 환수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7%, 24.5% 증가했고, 비중도 3.6%포인트, 1.3%포인트씩 상승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불에 타거나 습기에 의한 부패 등으로 훼손돼 한국은행이 교환해준 돈은 4억8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보리생산량 11만 8,112t

작년보다 10.6% 늘어

올해 광주·전남 보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1만 8천112t(조곡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 보리생산량은 지난해 10만6천749t 보다 10.6% 늘어났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보리재배 면적은 2만8천464㏊로 지난해보다 11.2%(3천590㏊) 줄었으나, 생육기간 때 기상여건이 좋아 전체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0a당 수량(조곡 기준) 역시 겉보리 509㎏, 쌀보리 444㎏, 맥주보리 386㎏에 달해 지난해 보다 20.2~46.3%가 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보리수매에서 1등 비율이 쌀보리 95.2%, 맥주보리 22.6%로 지난해보다 각각 39.6%, 18.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태기자 jtlee@